

“한계 中企·소상공인, 폐업·생존 구분해 투 트랙 지원해야”

中企 금융안정 지원 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한계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 ‘폐업’과 ‘생존’을 분명하게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생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생존 가능한 곳은 경쟁력을 강화해 경영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본딴 ‘한국형 PPP’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이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용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 이들에 특화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늘리는 대신 위험은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정책학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정책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 5번째부터)김용진 중소기업정책학회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임채운 교수
“취약한 곳, 퇴출길 열고 취업 유도 생존 가능한 곳은 경쟁력 제고 ‘한국형 PPP’, 고용지원금과 혼동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차별화”

이진호 교수
“특화된 새 신용평가기관 만들어 中企에 ‘복원력지수’ 적용해야”

업하는 ‘다산다사’의 악순환에 있다”면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연장하거나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을 ▲기회형 우량

소상공인 ▲생계형 생존 소상공인 ▲한계형 폐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기회형 우량 소상공인은 자생력이 충분해 정부 지원은 거의 필요없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은 ‘생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을 구분해 2원화로 차별적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자생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창업보담 취업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 반면 생존 소상공인은 전문성과 생산성이 결여돼있는 만큼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등 공동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계에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PPP’에 대해선 미국과 같은 급여보호프로그램이

아닌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명명해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혼동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한국형 PPP를 통한 인건비 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과 중복 논란이 있고, 급여수준이 높은 일부 벤처기업도 정부가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한국형 PPP 당감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고용안정이란 PPP의 취지를 살려 매출액은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종업원 300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한남대학교 이진호 교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평가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정확성, 독립성을 갖춘 ‘특화형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교수는 “최근 핀테크기업들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금융정보가 충분치 못해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가칭)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SMRI)’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신용평가시 기업의 회복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은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의 회복탄력성 평가는 기존 평가체계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단 대안적 평가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RI를 활용해 진단하면 ‘낮은 SMRI(관리대상 고위험군)’와 ‘중간 SMRI(관리대상 중위험군)’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진단 시점에서 위기대응 능력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모두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민간 주도 성장 초점... 예산 13.6조 편성

중기부, 내달 2일 국회 제출
中企·소상공인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가는 내년에 13조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한다.

중기부는 관련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조 94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틱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조주현 중소기업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 중기부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틱스 지원 규모인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에서 딥테크 트랙은 3년간 최대 15억원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스케일업을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급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12.6%)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에 4조 1759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아가 31일 서울 강남구 기아 360에서 열린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기아 레이(The new Kia Ray)’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전 좌석 풀 폴딩으로 공간활용 극대화

기아 ‘더 뉴 기아 레이’ 본격 판매

대한민국 대표 경차 레이이 상품성 개선 모델로 진화했다.

기아 박스형 경차 레이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성과 높은 경제성을 앞세워 국내 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 출시 12년차를 맞은 레이 는 부분변경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8.2% 늘어난 2만 2195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더 뉴 레이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기아 레이’의 9월 1일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레이의 차로 유지 보조(LFA), 운전석 통풍시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하고 운전석을 포함한 전 좌석 풀 폴딩 기능이 가능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레이의 디자인은 기존의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을 계승하면서 신규 디자인 요소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면부는 ‘스타랩 시그니처 라इट’과 깔끔한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로 ‘타이거 페이스’를 레이에 맞게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새로운 범퍼로 단단한 인상을 부여했다. 측면부는 다양한 선이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조형의 15인치 전면가공 휠이 개성을 더했다.

실내는 신규 클러스터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모던한 이미지의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를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앞좌석 풀 폴딩 기능과 뒷좌석 슬라이딩 6:4폴딩 기능으로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이 가능해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IFA2022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사격

베를린 전시장 입구 깃발 광고 설치

LG전자가 IFA2022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

섰다.

LG전자는 IFA2022가 열리는 독일 메세 베를린 전시장 입구에 깃발 광고 160여개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깃발은 LG브랜드와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 전세계 관람객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또 LG전자는 전시 부스 한쪽 벽면도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콘텐츠로 채우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